2018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1	④	2	①	3	④	4	②	5	④
6	③	7	①	8	⑤	9	⑤	10	③
11	⑤	12	⑤	13	②	14	①	15	③
16	④	17	③	18	①	19	③	20	②

윤리와 사상 해설

1. [출제의도] 불교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 이해하기

가상 대화의 스승은 석가모니의 입장을 강조한 불교 사상가이다. 석가모니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무명(無明), 집착, 애욕(愛慾)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2. [출제의도] 아퀴나스와 키르케고르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아퀴나스,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아퀴나스는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을 절대선인 신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인간이 종교적 덕을 실천함으로써 신의 은총을 받아 내세에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실존의 단계를 심미적 실존 단계, 윤리적 실존 단계, 종교적 실존 단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참된 실존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홉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홉스의 주장이다. 홉스는 사람들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맺어 규범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를 세운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회 계약의 목적이 계약 당사자들의 자기 보존에 있기 때문에 자기 보존권은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마르크스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입장 비교하기

(가)는 마르크스주의, (나)는 민주 사회주의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적 수단에 의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하며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 사이에 선후(先後)가 있다고 보았으며 사물에 대한 이치 탐구를 강조하였다. 왕수인은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 사이에 선후의 구별이 없다는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 [출제의도] 벤담과 듀이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벤담, 을은 듀이이다. 벤담은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강조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듀이는 인간 삶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식이나 신념, 사고 등을 도구로써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덕이나 윤리조차도 변화하고 성장하므로 고정적이며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동물과 다르게 영지의 기호를 지닌 인간이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발휘하여 옳은 행위를 할 때 후천적으로 사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정약용은 인간의 욕구를 긍정하였다.

8.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입장 비교하기

(가)는 자유주의, (나)는 공동체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개인들의 다양한 가치관 형성 과정에서 국가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와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며, 사회적 책무성에 의한 공동선의 실현을 강조한다.

9. [출제의도] 흄과 칸트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흄, 을은 칸트이다. 흄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원천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또한 시인(是認)의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가 선하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의무 의식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스토아학파 사상 이해하기

세로 낱말 (A)는 '이성'이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이성(理性)은 우주의 원리이자 본질이며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이 이성적 성찰을 통해 자연의 섭리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것을 바람직한 삶의 자세로 보았다.

11. [출제의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플라톤,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지덕복(知德福)의 합일을 강조하면서 모든 덕은 참된 앎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은 영혼의 세 부분이 각각의 역할을 다하여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보고, 인간 고유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갑, 을, 병은 모두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삶을 훌륭한 삶으로 보았다.

12. [출제의도] 정치적 의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의 입장 비교하기

제시문은 사회 계약론자인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국가가 생겨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합의의 당사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혜능과 지눌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혜능, 을은 지눌이다. 혜능은 누구나 단박에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돈오(頓悟)를 주장하였다. 지눌은 자신의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나쁜 습성[習氣]이 남아 있으므로 점진적인 수양을 통해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순자와 맹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예(禮)를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하늘과 인간의 일은 독립적[天人分二]이라고 보았다. 맹자는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근거로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15. [출제의도] 배려 윤리와 덕 윤리 사상 비교하기

갑은 배려 윤리 사상가인 나딩스, 을은 덕 윤리 사상가인 매킨타이어이다. 나딩스는 도덕적 삶에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의 적용보다 타인과의 관계성과 자연스러운 감정을 중시하였다. 매킨타이어는 덕을 전통과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두 사상가 모두 도덕적 문제 해결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6. [출제의도] 동도서기론과 위정척사 사상 비교하기

갑은 동도서기를 주장한 신기선, 을은 위정척사를 주장한 이항로이다. 신기선은 동양의 도를 기반으로 서양의 발달된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항로는 기존의 성리학적 가치 체계와 질서를 지켜야 하고, 서양의 정신과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상가 모두 성리학적 가치 체계와 인륜 도덕의 보존을 강조하였다.

17.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연 만물은 필연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유 의지가 들어설 여지는 없다. 스피노자는 신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인간 정신의 최고 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신 또는 자연을 이성적으로 인식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기 다르다고 보았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연원이 같다고 보았으며, 사단은 칠정 중에 선한 감정을 일컫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노직, 롤스, 왈처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노직, 을은 롤스, 병은 왈처이다. 노직은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정의로 보았다.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왈처는 정의의 영역을 세분화하고 서로 다른 영역들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들에 의해 분배될 때 복합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도(道)가 사라지자 인위적인 규범이 생겨나고, 분별적인 지혜로 인해 거짓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보면서 자연의 도에 따르는 무위(無爲)의 삶을 강조하였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무료 학습자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www.LegendStudy.com